

11월4일 월요일

9장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나
본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교리는 믿는 자
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만,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
약한 자들에게도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
니다(14절).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
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6절)

10장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본장 8-13절에서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나요?

- 1) 입으로 시인할 것:
- 2) 마음으로 믿을 것:

*항제 송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
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어

본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하고 기록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반응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와 ()의 풍성함
이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 나오
고, 주로 (), 주에게로 ()."

12장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
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지만, 또한 구원의 열매는
신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
다고 본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11월5일 화요일

13장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본장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국가의 질서, 법과 권위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은 모두 누구에게서 났고, 누가
정하셨다고 말씀하나요?

*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한 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행
4:19).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election day입니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4장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준
바울 사도는, 14장에서 교회 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하게 될 것입니다. (10-12절)

15장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던(14:23) 사도는, 신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1-2절).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요?(3절)

16장 나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사도는 마지막 인사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
고(1-16절),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로마 교회에
알려진 인물들의 인사를 전합니다(21-23절). 본문에는
35명의 이름이 거론되며, '문안한다'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다음 설명에 맞는 사람의 이름을 써 보세요.

- 1)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 일꾼:
- 2) 바울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동역자 부부:

*나는 또 다른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불러질지
생각해 볼까요?

11월6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장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졌습
니다. 이후 3차 전도여행 때,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글로에의 집 편으로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10-17절)

2장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앞서 1장에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을 책망한 사도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무엇에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였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장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사도는 본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을 농부로(6-10절), 그리고 건축자로(10-15절)
표현합니다.
바울은 농부가 되어 복음을 () 6절),
바울은 건축가가 되어, () 11절)의
터를 닦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동역자 아볼로와 함께 감당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4장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본장에서 바울은,
1)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오직
()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1-5절)
2) 그리고 조만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18-21)

11월7일 목요일

5장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는 고린도교회 내에 벌어진 근친상간의 문제로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고린도교회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관용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본장에서 분명히,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6장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본장에서 바울은 교인끼리의 소송문제와(1-11절), 음행(12-20절)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성도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9-10절)

7장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본장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에 대한 포괄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7-24절에서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독신 이든 결혼했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 20절, 24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써 보세요.

8장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본장에서 사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음식)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사실 폭넓게는 신자의 자유와 신자의 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인가요?

11월8일 금요일

9장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사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제기된 그리스도인의 자유(8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인이고, 사도이며,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으며, 고린도교회의 설립자로서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12절),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19절)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장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생활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 유익만 구하다가, 교회와 성도 앞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본장에서 사도바울은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예배 때 여자들의 행동(2-16절), 주의 만찬 문제(17-34절)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의 성만찬에서 분쟁이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요?

1) 분쟁의 원인(17-22절):

2) 바울의 권면(33-34절):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데, 은사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은사와 직분, 사역은 모두 다르고 여러 가지이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4-7절)

11월9일 토요일

13장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가 소개하는 '가장 좋은 길'(12:31)은,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처럼 특별한 성령의 어떤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최고의 은사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1) 방언과 천사의 말
- 2) 산을 옮길만한 믿음
- 3) 예언하는 능력
- 4) 몸을 불사르는 희생
- 5) 사랑

14장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본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이 예배 안에서 사용될 때 적용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어느 한 성도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15장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불신 및 회의적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회의 및 불신은 신앙의 근거를 뒤흔드는 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나요? (21-22절)

16장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22절)라는 말로 서신을 마칩니다. 주를 사랑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사도는 '주를 믿지 않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